

감히 어딜! 기존 강자들 상승세 무섭네

우수급 이찬우, 최근 3연속 결승행
최석운·김주석도 주목해야할 선수
선발급에선 한상진·고재성 '두각'
암흑기 벗어나 하반기 부활에 성공



이찬우



최석운



김주석



한상진



고재성

하반기가 시작되었을 때 관심은 기량에서 앞선 강급자들에게 쏠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강급자들이 고전하고 오히려 기존 강자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우수급에서 최근 잘나가는 선수로는 이찬우(21기 청주), 최석운(24기 신사), 김주석(26기 가평)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데뷔 이후 한 번도 특선급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이찬우다. 이찬우는 신인 때 선발급으로 데뷔한 이후 최근까지 선발급과 우수급을 오갔다. 올해 초반 해도 간혹 후착 배당이나 삼복승 복병 역할에 그쳤으나 최근 세 번 연속 결승에 오르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상대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특선급 기량을 갖춘 강급자들이다.

이제 이찬우는 다른 선수들에게 물어

가는 복병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력형으로 거듭나면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아직까진 경험 부족으로 결승에서는 이렇다 할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특선급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최석운, 김주석의 활약도 이찬우 못지 않다. 이들은 최근 결승에서 입상도 기록했다. 더 이상 우수급 불박이 선수들이 아니다. 최석운은 다음 회차에서 특별승급을 노릴 수 있고 김주석 역시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동기생인 정현수, 김영수, 전경호 등에 이어 특선급 진출이 기대된다.

● 긴 슬럼프에서 탈출하면서 급상승
과거 특선급에서 활약했던 한상진

(12기 인천)은 코로나 공백을 겪으면서 선발급으로 떨어졌다. 이후 기록 있는 플레어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렸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하며 선발급 강자로 우뚝 섰다. 최근 한차례 특별승급 기회를 맞았지만 아쉽게 3차에 그쳐 다시 승수 쌓기에 나서고 있다. 한상진의 다양한 작전 구사 능력이라면 충분히 다시 우수급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발급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고재성(11기 전주) 역시 최근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우수급과 선발급을 오가다 2014년 선발급으로 내려온 후 계속 머물러 있었다. 연대세력의 부재와 지나치게 서두르는 성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승에 자주 이

름을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인 4일 광명 결승에서는 강자로 나선 한상진의 후미를 따르며 추입에 성공해 쌍승식 50.8배란 고배당을 만들었다. 선행이면 선행, 쫓히기면 쫓히기, 추입이면 추입 등 못하는 작전

이 없어 지금과 같은 폼 상태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외에 한동안 긴 슬럼프를 겪었던 손주영(20기 구미), 전영조(20기 부산), 강형묵(21기 경기개인) 등도 요즘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품경륜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최근 각급별 상승세가 뚜렷한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듭되는 선전을 펼치면서 자신감은 물론이고 경기 보는 시야까지 넓어져 강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위등급 진출 발판을 마련한 선수라면 동기부여 역시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17기 후보생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제17기 경정선수 후보생을 모집한다. 경정 모터보트 승선이 원활한 신체조건(신장 175cm 이하, 체중 68kg 이하, 안경을 쓰지 않은 두 눈의 시력이 0.8 이상, 색맹이 아닌 사람, 청력과 혈압이 정상인 사람)을 갖춘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후보생은 2023년 1월부터 인천 영종도 경정훈련원에 입소해 2024년 6월까지 1년6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까지며 접수양식은 경정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미사리 경정장 '2022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미사리 경정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했다. 미사리 경정장 관람동, 관리동, 선수동을 중심으로 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관리자를 비롯해 민간 점검기관 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편성해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정해 공단 관리시설 2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축하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남시 지역민 게이트볼장 조성 기부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아파트 13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게이트볼장 준공식에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게이트볼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된다. 하남시게이트볼협회에서는 조성된 게이트볼장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 무료교육을 진행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경정, 코스별 맞춤 강자에 주목하라

진입 코스가 입상에 큰 비중 차지
가장 꺼려하는 6코스 김민천 우세

경정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추리하는 모미가 있다. 그 중 진입하는 코스가 입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상 대부분의 선수들이 턴 마크와 가장 멀리 있는 아웃코스 경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2년간 코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스별로 어떤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냈는지 분석하면 경주 추리에 도움이 된다.

우선 선수들이 가장 꺼려하는 6코스

서는 김민천이 가장 뛰어나다. 총 14회 출전해 우승 3회와 준우승 5회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연대율인 57.1%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심상철과 정주현이다.

5코스에서는 김종민이 가장 우수한 운영 능력을 자랑한다. 15회 출전해 우승 5회, 2차 7회로 연대율 80%이며 그 뒤를 18회 출전 중 우승 10회, 2차 3회로 연대율 72.2%인 조성인이 추격 중이다.

4코스는 심상철로 13회 중 우승 6회, 2차 4회로 연대율 76.9%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김종민과 김응선이 각각 연대율 76.5%와 73.3%로 2, 3위에 올라서 있다.

3코스부터는 연대율이 훌쩍 올라간다. 경정 최강자인 김종민이 연대율 81.3%의 압도적인 기록을 뽐내며 최상위에 있고 그 뒤로 박원규(14기)가 14회 출전 중 우승 7회, 2차 4회로 연대율 78.6%를 기록하며 올라 있다.

2코스는 위치가 유리하다보니 입상 빈도보다 우승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이다. 어선규가 우승 11회와 2차 5회를 기록해 연대율 94.1%로 완벽에 가까운 코스 소화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 뒤로 조성인이 15회 중 1차 8회, 2차 5회로 연대율 86.7%를 찍었고 이용세와 박원규가 각각 77.8%와 76.9%로 노련미를 과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코스는 눈여겨 볼 점이 있다. 1코스에서는 착순권 밖으로 한 번도 밀려나지 않은 선수가 무려 세 명이 있다. 김

응선, 이주영, 한중석이다. 물론 이들은 연대율 100%를 기록 중이다. 이중 승률로 보면 김응선이 11회중 우승 10회, 준우승 1회로 가장 앞서고 있다. 이주영은 우승 4회, 2차 7회이고 한중석은 우승 7회, 2차 4회로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정 패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김응선, 이주영, 한중석의 1코스 연대율 100%는 매년 좋은 모터와 만만한 상대만 만나지 않았을 텐데도 꾸준한 집중력으로 이런 성적이어서 해당 코스에 나서면 축으로 믿어도 확률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코스를 고정진입제로 운영을 하는 만큼 응원하는 선수가 매정받은 위치에서 평균스타트와 입상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며 추리를 한다면 적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골프

‘오구 플레이’ 윤이나, 3년간 출전 정지

KLPGA 상벌위 징계 처분 확정

‘오구 플레이’를 했음에도 즉각 신고를 해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3년 동안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3년 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의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이나는 6월 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러프에 빠진 티샷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임을 알고도 경기를 진행했다. 윤이나는 대회가 끝난 한 달 뒤인 7월 15일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하고 같은 달 25일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즉각 신고’ 논란이 일었다. 사과문 발표 이후엔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회에서 비신사적 행위를 했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 출석을 마치고 나온 윤이나. 윤이나는 '3년 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의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뉴스시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가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법에 돼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는 화끈한 장타를 앞세운 플레이로 ‘대형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웬케시그룹, 위믹스 구단 랭킹 단독 2위로

선두 CJ에 772.39점 차 추격

웬케시그룹이 ‘위믹스 구단 랭킹’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제38회 신한동해오픈’ 종료 후 위믹스 구단 랭킹 5위로 내려앉았던 웬케시그룹은 18일 끝난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 5명이 출전해 구단 별 포인트 1000점에 2위 전성현이 600점, 공동 9위 이원준이 285점, 공동 28위 한정현이 130.6점, 공동 60위 장승보가 7.5점, 김태훈이 5점씩을 각각 보태며 누적 2만3866.56포인트로 지난 주 대비 3계단 상승한 2위를 기록했다.

웬케시그룹이 위믹스 구단 랭킹 2위에 오른 것은 올 시즌 처음. 1위 CJ와의 포인트 차는 불과 772.39점으로 치열한 1위 경쟁이 예상된다. CJ와 웬케시그룹에 이어 3위에 우리금융그룹, 4위에 금강주택, 5위에 하나금융그룹이 자리했다.

한편 COWELL(코웰)은 구단 별 포인트 1000점에 우승을 차지한 최진호가 1000점, 공동 38위 데이비드 오가 85점을 각각 획득해 누적 1만6430.55점으로 1계단 상승한 17위에 자리했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22일부터 25일까지

위믹스 구단랭킹(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종료 기준)				
WEMIX GOLF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순위	구단명	출전 선수 수	클럽 포인트	포인트 차
1 (-)	CJ	0	2만4638.95	-
2 (▲3)	Webcash Group	5	2만3866.56	772.39
3 (▼1)	우리금융그룹	1	2만3863.96	974.99
4 (▼1)	금강주택	6	2만3618.75	1020.20
5 (▼1)	하나금융그룹	2	2만3145.55	1493.40
6 (-)	모로코신력	5	2만2113.32	2525.63
7 (▲2)	(주)우성종합건설	4	2만1499.20	3139.75
8 (▼1)	DB손해보험	2	2만1359.32	3279.63
9 (▼1)	케이뱅크(케이)	3	2만1290.54	3348.41
10 (-)	대보건설	3	2만38.64	4600.31
11 (-)	Volvik	3	1만9125.49	5513.46
12 (-)	SK telecom	1	1만8624.01	6014.94
13 (-)	NH농협은행	3	1만8582.42	6056.53
14 (-)	ZIVENT	1	1만8662.87	6076.08
15 (-)	BRIC	3	1만8460.83	6178.12
16 (-)	HUSEM	2	1만8430.42	6220.53
17 (▲1)	COWELL	2	1만6430.55	8208.40
18 (▼1)	에드가	5	1만6042.51	8596.44
19 (-)	신한금융그룹	0	9696.33	1만4942.60

펼쳐지는 ‘DGB금융그룹 오픈’ 이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역량 강화” 제2차 국제대회 읍저버프로그램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2022년 제2차 국제대회 읍저버프로그램’을 19~20일 송파구 일원에서 2022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와 연계해 개최했다.

국제대회 읍저버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현장에 체육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읍저버로 참가해 국제대회 준비·운영 과정에 대한 강의 청취 및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대회 준비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초 고양시(2022 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제1차 프로그램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결림연맹,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등 총 22개 체육 관련 기관, 총 36명의 실무자가 참가했다. 코리아오픈 테니스조직위원회에서 대회준비·운영 과정에 대한 강연과 함께 대회 현장 견학 등을 제공했다. 국제대회 개최 관련 관계자들의 특강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강의도 진행됐다.

국제대회 유치·개최의 양대 축인 체육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각 단체들의 소개 발표 및 상호 소통 간담회 등 종목·도시 간 매칭을 위한 워크숍도 열렸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